

[바둑]

‘여전사’ 박지은, 한국 바둑 계보 잇는다

국내 첫 ‘여류 9단’...이창호·이세돌과 최강 라인 구축 대리배 이어 원양부동산에서 ‘철녀’ 루이 잇따라 격파

국내 바둑 여자기사 최초로 9단에 오른 박지은(24)이 한국 바둑 계보를 잇고 있다. 이창호·이세돌 9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바둑 세계 최강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여자 바둑계는 중국 용병 루이나이웨이 9단의 독무대였다. 한국기원 소속인 루이나이웨이는 국적이 중국이면서도 한국 프로 기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국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철녀’ 루이나이웨이 천하도 서서히 위세가 약해지고 있다.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예 박지은의 도전이 매섭기 때문이다.

박지은은 지난해 대리배 준결승과 2004년 정관장배 준결승에서 루이나이웨이를 꺾은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제1회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에서도 316수 끝에 물리쳤다. 결승 3게임 중 첫 판을 내주고 나머지 경기를 내리 이긴 값진 역전승이었다.

대리배 이어 세계대회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시켰다. 한국기원 승단규정에 따라 세계대회 우승자는 특별승단할 수 있어 9단의 영예에도 올랐다.

박지은은 7단 시절이었던 지난해 대리배 우승으로 8단이 되었고 1년 만에 원양부동산배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9단으로 승단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아직 9단 여성 프로기사가 없다. 중국에도 루이나이웨이를 비롯해 3명의 여성 9단이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바둑에 관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입신(入神) 단계인 9단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한국 여성바둑은 지난해 정관장배에서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대리배, 원양부동산배를 잇따라 석권했다.

이창호, 이세돌 등 세계를 평정한 남자 바둑에 이어 최근 여자 바둑도 세계 무대를 넘보고 있다. 여성 바둑의 성장 중심에는 바둑



한국 바둑 여자프로기사로서 첫 9단에 오른 박지은이 지난 18일 인천공항에서 원양부동산배 우승컵을 치켜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판 앞에만 앉으면 그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박지은이다. 박지은은 최근 들어 전투를 피하지 않는 적

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양부동산배 마지막 경기에서도 중반 이후 계속 불리하게 끌려갔지만 대국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강한 승부 사작 기질을 보이며 승리를 따냈다.

끝내기 과정에 중앙의 대마를 집중 공격하는 과감한 패 싸움으로 ‘여전사’란 별명도 얻었다.

루이나이웨이는 지난 21일 여류명인전 4연패를 확정지었지만 기쁨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박지은을 지켜보는 걱정이 앞섰다. 루이나이웨이는 인터뷰를 통해 “박지은에게 많이 졌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더 부담스러워 졌다”고 고백했을 정도다.

한국 바둑의 천재로 불리는 이창호는 11살 프로 입문, 13살 타이틀 획득, 15살 41연승, 19살 역대 최대 13관왕 등 세계 바둑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박지은도 11살(1997년) 입단했고, 13살 2단 승단과 함께 제1회 여류명인전과 제9기 신인왕전 본선, 제1회 흥창배 본선에 올랐다. 14살(2000년) 제2회 흥창배 준우승, 제2기 여류명인전 준우승 차지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이창호의 화려함을 따라갈 순 없지만 한국 첫 여성 9단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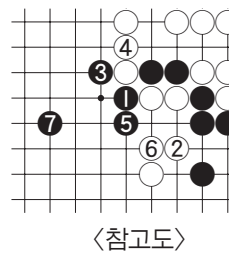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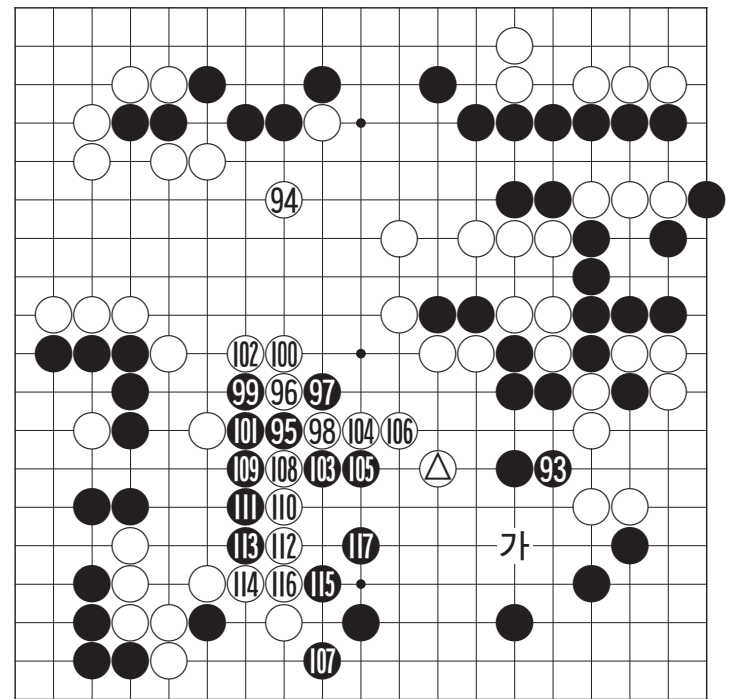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회 KBC시상배
초등 최강부
결승전

날아간 승부수
7보(93~117)

白 양문영
(비아초등 6)

黑 김영환
(금구초등 6)



<참고도>

양문영군이 신바람을 내며 백으로 위협사격을 해 대자 김영환군은 더욱 위축되어 흑 93으로 지켰는데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었다.

김군은 그냥 '가'로 연결하기가 싫어 우변 백 대마에 위협을 가한 것이나 우변에는 아무런 수가 없다.

백이 손을 빼서 94로 지켜버리니 중앙의 백 세력이 구체적인 집으로 변해버렸다. 이래서는 집착이가 크게 벌어졌다.

흑 9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김영환군이 뒤늦게 95로 쳐들어 갔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양문영군이 '혹한단 지켜도 이긴다'는 식으로 백 96으로 붙이고 98로 우지끈 끊어버리자 국면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흑 107로 뿌리를 흔들 때 백 108로 끊은 것도 모양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손익을 떠나서 변화의 여지를 중이자는 생각이다. 흑 107까지 김영환군의 노림은 계속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울 첫 메이저 타이틀은 내 것” ‘기세등등’ 이창호, 목진석과 원익배 결승 3번기

‘돌부처’ 이창호 9단의 올해 기세가 대단하다. 정초부터 9연승을 달리며 100%의 승률을 지켜나가고 있다.

또 10단을 내걸고 프로기사들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원익배 삼단전 원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창호는 올해에도 삼단전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19일 서울시 흥익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3기 원익배 삼단전 준결승전에서 이영구 6단을 맞아 217수만에 흑백계승으로 물리쳤다.

이창호는 이미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목진석 9단과 26일(2월2일 변경 가능)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이창호는 강동운 7단, 이상훈 9단, 송태곤 8단, 고근태 5단, 이영구 6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창호는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전적에서 16승6패로 목진석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창호는 1월 초순에 열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백호부 8강전에서도 목진석에게 승리를 거둬 삼단전에서의 선전이 짐쳐진다.

이창호는 지난해 명성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건강 이상설까지 나돌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1전 전승을 거두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창호는 지난해말 KBS바둑왕전 우승 이후 한 달여 만에 우승을 또 노리고 있다. 이번 삼단전을 평정한다면 생애 통산 135번째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 2008년에 처음 열리는 타이틀전이 이창호에게는 특별한 이유다.

원익배 세번째 주인을 가리게 되는 결승 3번기 제1국은 사이버 오로 홈페이지(http://www.cyberoro.com) 대국실에 접속하면 경기를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며 돌을 맞춘 사람이 흑백을 결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승상금 1억원’ 하이원배 명인전 개막

국내 최대 기전...21일부터 예선전

1억원의 우승상금이 걸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이 개막했다. 지난해부터 총 상금을 7억5천만원으로 올려 국내에서 열리는 단일 대회로는 최대규모다.

하이원배 명인전은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열린 기전이다.

한국기원은 25일 “프로기사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하이원배 명인전이 지난 21일 개막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 프로기사 랭킹 1~28위(2008년 1월 랭킹)에 대한 조편성 배정을 고려해 예선전 추첨을 실시했다.

222명의 프로기사 중 시드 3명(전 대회 우승자 이세돌, 준우승 조한승, 3위 목진석)을 제외한 219명이 예선을 치러 7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시드 출전자를 포함한 본선 진출자 10명이 풀리그전을 통해 1, 2위를 선발전 뒤 결승 5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또 본선리그 3위까지는 차기 대회 본선 시드권을 부여하며, 본선 순위 상금 이외에 마지막



지난 21일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전인 하이원배 명인전 예선전에서 프로기사들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대국까지 박진감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매 경기 승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한 이창호 9단을 비롯하여 박영훈 9단, 최철한 9단 등이 예선 1회전부터 출전해 결승 못지않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현재 이창호·최철한·원성진 9단, 윤준상 6단 등 25명이 3차 예선을 통과해 최종 진출자 7명을 선발전하는 4차 예선전에 진출했다.

하이원배 명인전의 모든 대국은 제한시간 각자 2시간, 초읽기 60초 3회, 덩 6집반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국일 깜박’ 지각한 서봉수 불계패

통산 1천승을 달성한 베테랑 프로기사 서봉수 9단이 무명예가 가까운 김형환 4단에서 패배한 사연이 흥미롭다. 바로 대국일을 깜박해 불계패 당한 것이다.

서봉수는 지난 17일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예선 1차전 첫 판에서 탈락했다. 대국 일자를 착각한 서봉수는 다른 일을 보러 가다가 기원

측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대국실로 허겁지겁 달려 왔다. 그러나 무려 50분이나 늦은 뒤였다.

이번대회 대국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지각 시간의 두 배를 공제하는 대국 규정에 따라 서봉수는 불과 20분만에 바둑을 뒤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결국 시간이 없어 제대로 수읽기를 못하고 실수를 연발, 판을 접어야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보고서 “만성 질환 예방에 있어 ‘큐텐’의 효능은 ‘소변자가 붉은 줄은 갈고양’을 뛰어넘는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미생물, 알레르기 반응, 면역력 저하 방지, 노년기
- 눈의 건조감 완화, 야맹증
- 지방 피부염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예방, 유해미생물 억제, 잇몸염, 미용효과
- 뇌졸중예방 및 병후 회복, 알코올 중독의 예방, 노년기, 만성질환, 수축기심근수축성능
-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에이스
큐텐
www.kyuten.com
고객센터 문의 번호 080-022-2200